



## 예측 트렌드 Trend Forecasting

콘텐츠 유형 : 스팟 리포트타주

취재 및 사진, 글 : 최성훈 (트렌드 리서처)

자료제공: Chairs on the Hill



## ‘Story가 담긴 가구’

- Chairs on the Hill 한정현 대표-

가회동이나 삼청동을 찾을 때마다 항상 작은 설렘을 느낀다. 소박하지만 특별한 공간이 많은, 그리고 고요한 듯 부지런히 활동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의 기운을 느낄 수 있어서 인듯하다. 그 조용하고 한가로운 가회동의 한 자락에 위치한 쇼룸 겸 갤러리 ‘Chairs on the Hill’ 에서 가구 디자이너 한정현 대표를 만나 그녀의 디자인 세계와 가구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사진 1&gt;한정현 대표

사진 2>'Chairs on the Hill' 에 전시된  
한정현 대표가 디자인한 가구들

2004년 Design jh 이라는 가구회사를 시작으로 국내 갤러리 전시회와 해외 가구 박람회를 통해 가구 디자이너로 가구를 소개하고 주문제작 및 판매하게 되었다. 그 후, 2007년 가회동 막다른 골목에 위치한 'chairs on the hill'을 오픈하면서 그녀의 가구를 본격적으로 전시하고 판매하는 쇼룸이자 갤러리와 카페가 합쳐진 복합 문화공간이 탄생하게 되었다. 가구 디자이너 한정현은 그녀의 작품 속에서 감성과 기술의 조화를 추구하며 동양적이며 세계적인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다. 그녀의 가구는 일상적인 공간을 창조하는 가구, 새로운 의미와 이야기를 만들어내며 매일매일 함께하는 가구를 만들고자 열린 생각과 마음으로 작업하고 있다고 한다.



사진3> 한정현 대표의 젊은 감각과 새로움이 묻어나는 디자인들: 선반 'Chairs on the wall' & 시계 'Time flies'(좌)/스트라이프 스톨2(우)

### ‘일상생활 속에서 디자인의 컨셉과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디자인 작업을 할 때 주로 어디서 디자인 컨셉이나 영감을 얻느냐는 질문에 한정현 대표는 주위와 일상 생활 속에서 작품의 영감이나 컨셉을 얻는다고. “운동과 여행을 좋아하는데, 운동 중에 문득 영감이 떠오르기도 하고 여행에서 접하는 다른 문화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도 해요” 또한 사회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극복하고자 본질적 개념보다는 개인과 사회를 위한 변화의 가능성을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이와 덧붙여 필요에 의해 디자인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2개월 전에 결혼을 했다는 한정현대표는 얼마 전 새로운 테이블 가구를 디자인 제작했는데, 사실 신혼 집에서 그녀가 직접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이렇듯 디자인을 위한 가구가 아닌 생활을 위한 가구를 디자인하고 만들고 있다는 그녀의 가구는 무겁거나 진지하기보다는 젊은 디자이너 다운 감각과 실용성이 돋보였다.



## ‘현대인의 외로움을 표현한 너무도 인간적인 디자인’

그녀의 쇼룸에 있는 가구 중 눈에 띄는 그 무엇이 있었다. 주로 나무를 사용한 가구들이 대부분인 가운데 초록색을 띤 작은 화면이 달려있는 의자(?)인 듯 보이는 작품이었는데 한정현 대표가 유학시절에 디자인 한 의자 디자인이라고 했다. ‘호머사피언스’에서 착안된 ‘텔레사피언스’(Tele-Sapiens)라는 작품명을 가진 의자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의자라는 컨셉으로 지구촌에 흩어져 있는 가족과 친구를 이어주며 때론 가상공간을 가로질러 새로운 친구와 가족을 연결해 주는 의자라고 했다. 홀로 외롭게 지낸 유학생살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테이블에 포크, 나이프, 스푼 외에 리모컨이 놓여지는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한 테이블 세팅. 리모컨에는 친구, 가족, 새로운 친구라는 메뉴가 있어 혼자 식사하며 선택된 상대와 대화하며 식사를 한다는 스토리가 담겨진 작품이다. 졸업작품이었기 도 한 이 작품은 교수와 학생들로부터 대단한 호평을 받았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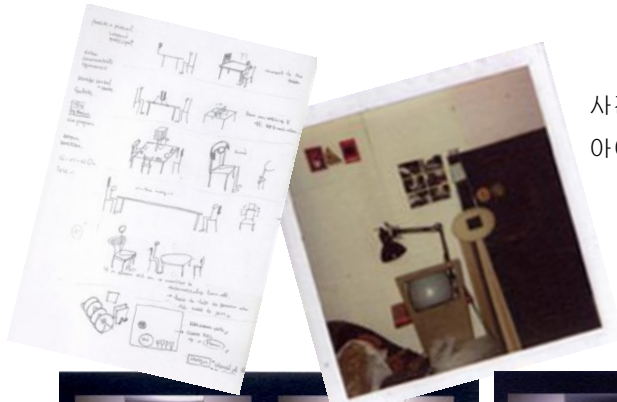


사진4> 작품 '텔레사피언스'의 아이디어 스케치 및 초기 mock-up



사진5> '텔레사피언스' 스토리 영상



사진6> 쇼룸에 전시된 '텔레사피언스'

## ‘저가가구, 빈티지 가구 바람’

가구 디자인 역시 그린디자인, 환경 디자인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경기 침체에 따른 저가가구가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한정현대표는 설명했다. 또한 빈티지의 강세가 느껴진다고 말하며 기존의 가구에 다른 재료를 덧붙여 새로운 컨셉의 디자인으로 다시 만드는 리폼 가구 디자인 역시 최근 추세라고. 이제는 가구 디자인이라는 경계의 의미가 점점 없어지고 있으며, 작품으로서의 작가활동과 판매로 연결되는 가구 디자이너로서의 직업을 함께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개개인이 만족할 수 있는 개인적 취향의 디자인으로..’

이제 현대인들에게 가구는 생활도구의 개념을 넘어서 인테리어 소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의해 소비자의 가구 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며,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맞춤형으로 구입하길 원한다. 이렇듯 각각의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개인취향에 맞는 디자이너의 작품을 선호하는 매니아 층이 두껍게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현 동향에도 맞아 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구 디자이너를 꿈꾸는 디자인 전공 학생이나 가구 디자이너로써 이제 막 발을 디딘 주니어 디자이너들에게 유명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많이 보고 느끼기 위해 발로 뛰며 직접 체험하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조언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사진7> 북촌 코너 갤러리에 전시중인 한정현 대표의 작품

**한정현** 대표 약력.

학력

Cranbrook Academy of Art: MFA 3D design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BFA 가구 디자인

경력

2007 Chairs on the hill 개인 가구 샵 오픈/경영

2006 KT CVIC Project 참여 디자이너(강남교보빌딩)

2002 West Office Exhibition Design: Oakland, California

강의

2008 현재 계원조형예술대학교 겸임교수(가구디자인)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 출강(실내디자인)